

## 본회 지난 2월 21일 정기총회 개최

### ● 신입회장에 한형석 회장 선출



본회는 지난 2월 21일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3년 정기총회에서 한형석 (주)마니커 사장을 만장일치로 신입회장에 추대했다.

또한 감사에 성화식품(주) 이승준 사장을 선출했으며, 명예회장직을 신설하여 7년간 회장직을 맡아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홍국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갖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올해에는 '소비홍보특별회계'를 '소비홍보 및 수급조절특별회계'로 확대, 수급조절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제도개선, 닭고기의 수출지원 및 소비확대 홍보사업 등 200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본회는 그동안 닭고기 소비확대 및 계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업계관계자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증정했다.

## 〈2003년도 포상 대상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농림부 장관 표창	이찬도	우인산업(주) 전무이사
	한성희	(주)하림 전무이사
협회장 표창	안규정	농림부 축산경영과 주사
	이수두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홍종만	원진산업 대표
	홍영철	계유식품(주) 부장
	김해일	참대나무 대표
	송상훈	성화식품(주) 차장
	김병갑	그린 앤 푸드 대표
	원하식	강릉토남 대표
	곽재신	DD치킨 화서점 대표
	하우남	삼성축산 대표
	윤태희	(주)키토랑 상무이사
	서정택	(주)한일농원 차장

## 병아리 입식감축 및 닭고기 수매비축 실시

### ●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일조

본회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긴급대책으로 100만수의 병아리 입식감축과 닭고기 50만수 수매비축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닭고기 수매비축은 2월 12일부터 회원사별로 수매량을 배정해 회원사 자체적으로 당초 50수를 비축키로 계획했으나, 50만수보다 30만수 많은 약 81만7천수의 수매비축을 지난 2월 19일 완료했다.

또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54만수의 병아리에 대해 랜더링처리를 실시했다.

병아리 랜더링 처리는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등 3개 회원사 랜더링장에서 실시

되었으며, 비용은 본회 2003년 소비홍보 및 수급 조절 특별회계에서 수당 100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번 병아리 랜더링 처리는 당초 2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5주간 100만수를 계획했으나, 육용병아리값이 300원대로 상승하여 3월 4일까지 54만6천5백수를 처리하고 중단했다.

3월 11일 현재 육계가격은 kg당 1,500원으로 상승했으며, 수당 병아리값은 320원이다.

## 초생추거래 및 육계위탁사육 담당자 회의

- 거래처와 협상하여 계약기간 줄이거나 하한가 인하 추진키로



본회는 지난 2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초생추 거래 및 육계 위탁사육계약서 검토회의를 갖고 초생추 거래가격의 상하한가 폐지를 위한 거래계약 개정건에 대해 앞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 개별적으로 거래처와 협상하여 계약기간을 줄이거나 하한가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육계위탁사육 계약서와 관련하여 최근 사료품질과 사육기술이 향상되었으므로 기존 사료요구율에서 0.05 정도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각 회원사별로 농가와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 본회 한형석 회장과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



지난 2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와의 첫 간담회에서 한형석 회장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형석 회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회원사들의 이익보다는 자율시장 경쟁 시대하에서 국내 계육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 해결에 협회 사업방향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계육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생계시세에 의한 계육가격 결정 체계를 지목했으며, 이외에도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와 최근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를 토대로 한 설득에 대외활동의 중점을 둘 것이며, 협회 직원의 전문성 보유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했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는 육용종계업계의 대하

림 실행행사 방법에 대해서 한형석 회장은 “육용 종계업체의 의도가 감정이 아닌 국내 육계산업을 위한 것이라면 계육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육계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주체의 공로가 경영관 하나 때문에 무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계업체도 일정비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열화업체와는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협조를 해나가야 할 뿐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지론을 펼쳤다.

## 본회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무단 사용 강력 대처키로

### ● 탈퇴회원의 품질보증마크 사용중지 통고

본회는 지난 2월 21일자로 탈퇴회원에 대해 ‘품질보증마크’의 무단 사용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6일 (주)해표푸드서비스의 회원탈퇴 신청처리와 관련 본회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 통보하였는바, 2월 20일 현재 본회의 품질보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품질보증마크 사용을 중지할 것을 재 통고했다.

또한 2월 27일 이후 해표푸드서비스의 시중 유통 제품에서 본회의 품질보증마크 사용이 확인될 경우 특허청 의장법(제 264771호 포장용 봉지, 제 265772호 품질표시표) 위반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허위 및 과대광고)으로 민·형사상 및 행정고발 조치키로 했다.

## 「일본의 닭고기 표시 핸드북」 최신판 번역, 발간

### ● 일본의 JAS법, 경표법 등을 닭고기 중심으로 해설 제작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JAS법을 개정하여 모든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식품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는 등 식품 표시가 사회문제로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식조협회는 닭고기 표시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이외 여러가지 닭고기 표시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닭고기 표시 핸드북」을 만들어 표시의 적정화와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일본으로 닭고기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강화된 일본의 적정(원산지 및 규격)표시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만 낭패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일본의 JAS법, 경표법 등을 닭고기 중심으로 해설 제작한 「일본의 닭고기 표시 핸드북」 최신판을 번역, 책자로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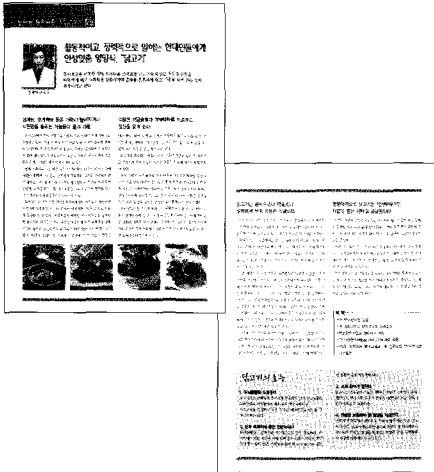
본 책자에는 「닭고기 표시의 법과 각 법규」

「가금육처리장 및 유통단계의 표시」 「소매단계에서의 표시」 「부당표시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조사·조치」 「일본식조협회가 정한 표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 책자를 받아보지 못한 기관단체, 회원사는 본회(전화 031-707-5722)에 연락하시면 우송하겠습니다.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기사 여성지 게재

#### ● 소비자들에게 한의학에서의 닭고기 효능에 대해 홍보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닭고기는 식용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이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역대 의서들을 살펴보면 닭고기의 약성은 비장과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력을 강화시키며 골수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하는 것 등이 특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한약을 복용할 때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든지, 임신했을 때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살결이 닭살

과 같이 된다는 등의 잘못된 속설로 닭고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회는 이러한 닭고기에 대한 잘못된 속설들을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은 물론 닭고기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현재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 및 영양학적 효능에 관한 원고를 받아 주요 여성지인 '여성중앙' 과 '여성동아' 3월호에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이번 닭고기 홍보기사는 기존의 광고형식을 탈피하고, 전면을 닭고기의 효능에 관한 홍보기사로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 ● 육계 수급조절을 위한 중계감축 방안 논의



본회는 지난 3월 5일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열고 육계 수급조절을 위한 중계감축에 동의한다는 기존 결의를 다짐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계협회와 협의한 후 양 단계간 일정 비율을 정해서 함께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병아리 구매가격 상·하한가 폐지에 대해서도 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계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실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